

우리 당과 인민의 뜨거운 축복속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뜻깊은 평양제류의 나날을 보내었다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의 열매를 향하여 용기있게,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방과학 부문에서 이룩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성공의 성공은 온 나라를 물들인 격정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인민들은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민력마의 교병을 익세게 틀어쥐고 새로운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충성의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자랑한 승전포상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총리께서는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성취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주체조선의 강요한 기상과 위업을 반영해 펼친 미려운 국방과학전사들이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최상최대의 영광을 누리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뜻깊은 평양제류의 나날을 보내었다.

25일 《화성-10》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인민들을 맞이하는 평양은 축하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평양체육관으로부터 보통문거리, 민수대거리, 옥류교, 대학거리 등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나와 자주와 정의의 장엄한 피상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판권을 위한 총공적전, 총돌격전에서 승리의 물과 구름 총패하게 엮어제친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자강으로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또다시 과시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총리와 김정일총리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았다.

그들은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의 문뜰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새로운 전략무기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원승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세계에 펼쳐있음을 긍지높이 이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총리께서는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현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명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꿈결에도 범고실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감격과 행복에 겨워

그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생의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될 평양제류의 나날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인민들은 선군총대의 고향 평성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탄생을 선언한 력사의 총성과 더불어 자립적국방공업의 초벌기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변의 업적과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그들은 당의 영도따라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종합정신, 1950년대 군사혁명정신으로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함으로써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역척같이 다져나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은 21세기 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에서 당의 진민과학기술인재육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최한한 과학의 별천지를 마련해주시고 과학기술의 기원차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는 선군조선의 강대한 힘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들로 훌륭한 일떠선 불라인 민우민지와 불라품동어판,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그들은 어머니당의 은덕을 가슴뜨겁게 새기였다.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와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총리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국방과학전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개, 혁명적항만을 백배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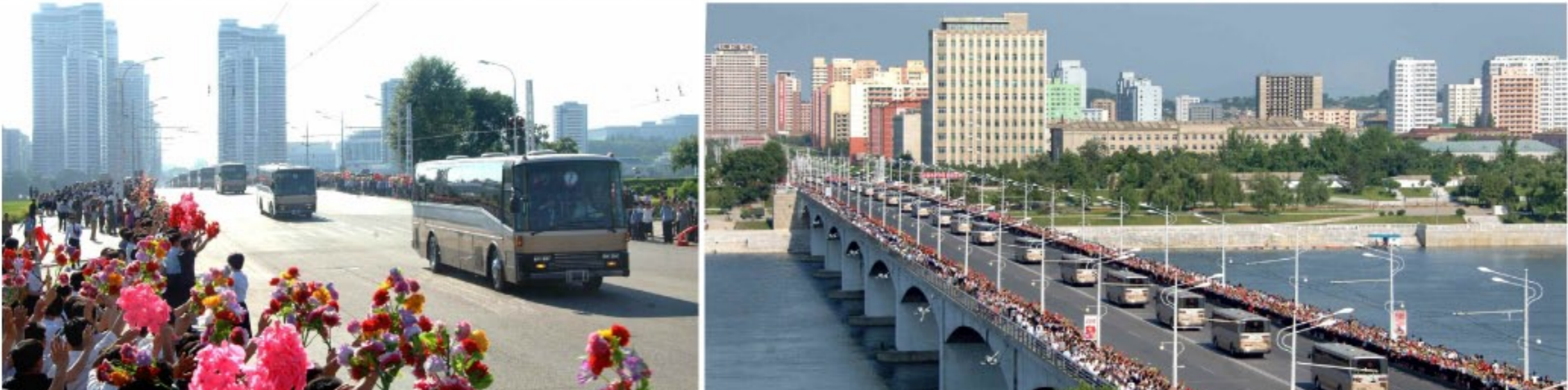
그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바친 애국충정을 값높이 평가하시어 성대한 환영연회와 은쟁이런 생일상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국방과학연구와 군사혁신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자랑한 승전포상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올려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축하와 환대를 받으며 인생의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잊지 못할 평양제류의 나날을 보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인민들이 29일 귀로에 올랐다.

수도 시민들이 수십 리 연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층도록 간직하고 국방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승리의 총성흔을 번이 불려올 결의를 안고 초소로 올라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을 뜨겁게 바래주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총리의 사상과 영도를 충정다해 받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권을 위한 민력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만리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결코 물러 국제적인 반공화국일파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계속 악화되게 감행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발사를 놓고 그 무슨 《도발》이요, 《위협》이요, 《위안》이요 하면서 탐욕으로 결코 고칠수없는 사실 우리에게 도달할 위협을 가하고 국제법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자신이다.

미국이 《미씨피코》호핵동력잠수함과 《B-52H》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있는것이 바로 도발이며 우리 수비부를 노린 《참수작전》, 《평양침범작전》 등을 꾸며들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위협이다.

우리가 이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핵시험과 탄도로켓도발

월간국제정세개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높아가는 반미기운

이달에 들어와 세계주의 침략세력은 날로 강화되는 지주,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의 열기를 가르막아보고자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반도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인보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마치도 우리 공화국때문에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위협했다.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합치적으로 유린하고 파괴해온 그들의 호전적책동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놓으려는것이였다.

하지만 강도가 강도가 하는 식으로 높아가는 미국의 상주적인 수법은 오늘날 같은 밝은 세상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달 중순 미국이 이미 2개의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대가 조선반도수역을 행불고있는 때에 전략적기비행대와 핵동력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한것은 일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시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군사적행동은 조선반

도에서 미상사태를 선포한것은 사회적인정을 보장하고 투쟁으로 쟁취한 권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있다.

미국의 핵폭탄에 언제나 작성을 가지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있게 벌려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 한번 새겨주었다.

미국에 대한 중도의 감정은 도이런반대에서도 억압되었다. 수천명의 평화운동가들은 라인인도말츠루에 있는 킨츠마르호르담수타인미공군기지까지의 9km구간에서 인간사슬을 형성하고 미군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있는데 대해 신랄히 규탄하면서 무인기침을 당장 중지할것과 무인기침에 리용되고있는 탐수타인미공군기지를 당장 철거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과 건널인 동맹관계에 있는 도이런반대에서도 억압되고있다. 미군에 대한 혐오감 이 남을 따라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에 대해 제정것은 국제적으로고한다. 이것이 이달의 국제정세의 주된 동향이다.

본사기자 김수진